지난 24일 열린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는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사진 가운데)은 지난 24일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각회 신년법회에서 "소통의 상생정치"를 당부하는 법문을 설했다.

## 올해 첫 전국 교구본사주지회의…23명 참석

# "사유재산 종단 출연 마땅…" 한목소리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종단에서 추진하는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지난 2월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1회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주지스님들은 "출가 수행자가 삶을 회향할 때 남은 재산을 종단에 회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지난 1월21일 공포된 시행령은 2007년 개정된 승려법을 모법으로 한 것"이라면서 "3월 임시종회에서 승려법을 보완해 시행하겠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총무부장 스님의 보고후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의견을 개진했다.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종삼스님은 "이견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 자발적 출연의지 갖게 흐름 형성이 우선돼야

고 강조했다. 이어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은 "절에서 혜택을 받고 살다 생긴 동산이나 부동산을 입적 후에 속가의 인연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사례를 많이 봤다"면서 "사유재산을 종단에 출연한다는 령이 제정된 것에 대해 찬동하고, 적극 찬성하는 스님들이 많다"고 환영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도 "재가불자들에게는 시주하라고 하면서 스님들이 사유재산을 갖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종령보다는 종법으로 명시해서 확고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기본 취지에는 찬성하며, 너무 경직되게 하기보다는 여유를 두고 자발적으로 (출연)하도록 흐름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종단에서 추진하는 '스님들의 사유재산 출연'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사유재산 종단 출연에 대한 종단 입장에 대해 "결의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지만, 박수로 동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밖에도 △사찰토지처분금 활용 △사찰등급 및 사찰분담금 조정 △종단 4개년 발전계획 및 올해 종무계획 등 종단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종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23명의 주지스님이 참석했고, 교육원장 현응스님과 포교원장 혜총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과 차·팀장급 재가 종무원이 배석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 본말사 주지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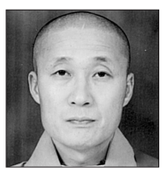
〈불교신문〉은 "종지와 종책의 선양을 위한 종단 언론시책과 홍보업무 및 포교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기관지령'에 근거해 조계종 총무원 종무회의 결의와 총무원장 스님 결재를 득한 전국 본말사 주지 인사 내용을 소개합니다(교구본사 순). 임명일 (2월23일 종무회의 결과)

혜주스님
여주 구곡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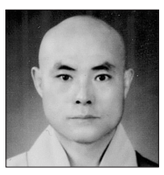
현간스님
김천 용화사

혜선스님
대구 금용사

원명스님
대구 관음사



서정스님
광양 삼광사



성견스님
장흥 신흥사

## 총무원장 자승스님, 국회 갈등 언급하며 '화합' 당부

# "소통·상생정치로 국민 편하게 해야"

### 조계종 총무원장 초청 국회 정각회 신년법회

여야가 대립하는 것은 물론 같은 당(黨) 내부에서도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소통의 상생정치로 국민을 편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월2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신년하례법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국회의 다툼과 대립이 갈등을 넘어 감정으로 치닫는 것에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정치 상황에서) 정각회원들은 여야를 떠나 대립과 갈등을 소멸하고, 소통의 상생 정치로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17세기 프랑스 시인 라퐁텐의 우화와 〈장자(莊子)〉〈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 등에 나오는 일화를 예로 들며 "상대를 존중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어를 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심(公心)"이라고 강조하고, "공심이 사심(私心)으로 변하면 그때부터 경쟁에서 떨어지기 쉬우며, 사심으로 일할 경우 권위를 비롯해 정신적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님은 "종단은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과거가 있다. (이제는)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종단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불교를 떳떳하게 (나의 종교라고) 밝힐 수 있도록 (종단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병국 정각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야와 당파를 초월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이어 강창일 정각회 부회장은 "온 국민이 화합하고 남북이 화해하여 통일을 이루길 기원한다"는 내용의 발원문을 낭독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국회정각회, 국회직원신도불자회, 국회법우회에서 모금한 아이티 성금 1만달러를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법회는 정각회 감사 이계진 의원이 사회를 보고 총무원 기획국장 만당스님이 집전을 했다.

법회가 끝난 후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동참자들은 의원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아침공양을 같이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법회에 앞서 국회 본관에 있는 정각선원 법당을 참배하고, 최병국 정각회장 집무실(정보위원장실)에서 잠시 차담을 나누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 사서실장 경우스님,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조창희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이병길 국회직원신도불자회장, 장재혁 법우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최병국·안홍준·강창일·이계진·권선택·최재성·김태환·김해성·배은희·송광호·이진복·이해봉·임동규·정갑윤·정해걸·조문환·김재경·이은재·신명철 의원이 참석(무순)했다. 국회 본관 앞에서 총무원장 스님을 영접한 박계동 국회사무처장도 줄곧 수행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 경학-무비스님 중앙승가大 명예박사 의례-세민스님

### 제28회 학위수여식…"菩提 구하며 중생 보듬길"

중앙승가대학교(총장 태원스님) 제28회 학위수여식이 김포 학사에서 열렸다. 학위수여식에서는 승가대 개교 최초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명예박사 1호는 교육원장을 역임한 무비스님, 2호는 조계사 주지 세민스님이 받았다.

대학원장 종석스님은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이유에 대해 "무비스님은 경학 분야에 남다른 업적을 쌓고 교육원장 재직 시 승가대 학사 이전에 기여한 점을, 세민스님은 의례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이며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겼고 학교 이전 불사에 기여한 점을 들었다"고 밝혔다.

학위수여식에는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이며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 교육원장 현응스님, 교육부장 법인스님, 불학연구소장 원철스님, 중앙승가대 동문회장 정념스님, 김정진 김포부시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중앙승가대학원은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석사학위 7명(불교학과 5명, 사회복지학과2명), 문학사 62명(불교학과 22명, 역경학과 7명, 포교사회학과 6명, 사회복지학과 27명)을 배출했다. 수석은 대학원 선나스님(불교학과 불교학 전공), 학부 도현스님(사회복지학과)이 영예를 안았다. 이사장 자승스님은 "학교에서 탁마한 지혜를 바탕으로 이제 승단의 정식 일원이 되는 스님들이 앞서 종단의 발전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박부영 기자

## 중앙승가대 예산 확정 도서관 건립비용 눈길

중앙승가대는 재단법인 예산 24억3500만원, 학교예산 90억1474만9000원으로 구성된 올해 예산을 확정했다. 중앙승가대 학교법인은 지난 2월24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87차 이사회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했다. 학교예산 중 50억원이 증액된 도서관 건립 비용이 눈길을 끈다. 이사회는 또 신임이사를 선출했다. 신임이사는 교육원장 현응스님, 총무부장 영담스님, 기획실장 원담스님, 교육부장 법인스님이다.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


# 인재 채용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인재를 채용합니다.

- 다 음 -

**▌채용분야 및 방법**

○**채용분야** : 일반 행정직(일반행정/전산/문화재/불교중앙박물관)
○**채용형태** : 신입/정규직(단, 불교중앙박물관은 계약직)
○**모집인원** : 일반행정 분야 O명, 전산 분야 O명, 문화재 분야 O명
불교중앙박물관 O명(계약직)
○**근무조건** : 주5일 근무제, 4대 보험 적용
○**지원자격** : 조계종 신도/병역 의무 복무 필 또는 면제
/종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일반행정 분야 : 불교 관련 활동 경험자 우대
- 전산 분야 : 전산 전공 또는 경력자 우대
- 문화재 분야 : 불교문화재, 불교미술, 불교무형유산 등 석사과정 이상 우대
- 불교중앙박물관 : 전시, 유물관리, 교육 등 박물관 경력자 우대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10년 **2월 25일** ~ 2010년 **3월 11일**
오후 6시(마감일 도착)
○제출서류 : 이력서(지원 분야 표기)/자기소개서/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조계종 신도증 사본 또는 재적사찰 주지스님 추천서/기타 경력증명서 및 각종 자격증 사본

**▌전형 일시 및 방법**

○1차 전형 : 서류 전형
- 합격자 발표 : 2010년 3월 12일(금)(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2차 전형
- 방 법 : 필기 전형(불교상식, 일반상식) 및 실기 전형(엑셀, 파워포인트)
- 일 시 : 2010년 3월 16일(화) 9시 30분(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함)
- 합격자 발표 : 2010년 3월 22일(월)(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3차 전형
- 방 법 : 면접 전형(불교적 소양 함양 정도 및 전공 분야 능력)
- 일 시 : 2010년 3월 24일(수)(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 발표**

○2010년 3월 31일(수) 개별 통보

**▌문의 및 접수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 **2011-1702**
○세부내용 안내 :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참조

* 첨부한 이력서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 작성 시 지원분야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및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제10주기 운경큰스님
# 기신재 봉행 및 정기 문도총회

귀의 삼보하옵고
수행정진과 불법홍포에 진력을 다하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0주기 운경큰스님 기신재 봉행 후 정기 문도총회(문규 제16조에 의거)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문도회원께서는 모두 참석하시어 문도화합과 발전에 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운경큰스님 기신재**

▌**일 시** : 불기2554년 **3**월 **8**일(월) 오전 **10**시 **30**분
▌**장 소** : 봉선사 큰법당

**월초문도회 정기총회**

▌**일 시** : 불기2554년 **3**월 **8**일(월) 오후 **1**시
▌**장 소** : 봉선사 운하당
▌**안 건** : 문조현양사업의 건, 문규 개정의 건, 기타
▌**문 의** : 월초문도회 사무국 031)527-5974

**월초문도회 門長 월운 해룡 和南**